

“北, UNDP 통해 수천만弗 조달 의혹”

〈유엔개발계획〉

핵 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1998년 이후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UNDP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 내 사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외부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널은 사실과 별도의 논평을 통해 UNDP의 대북사업 감독 부실이 최근

WSJ 제기...UNDP, 3월부터 대북 현금 지급 중단

임대료·급여 등 통해...潘총장, 사업 전반 조사 요구

공개된 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업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UNDP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유엔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널은 마크 윌리스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지난 16일 애드 맥커트 UNDP 총재에게 보낸 서신내용을 인용, UNDP가 자금 및 재원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북한 정권에 현금과 다른 재원들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유엔규정 위반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금을 안겨왔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UNDP를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 1998년 이후 UNDP가 북한에서 집행한 자금이 최소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면서 일각에서는 1억달러가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널은 UNDP가 평양사무소 임대료와 직원 채용, 급여 및 식비 지급, 사업비 집행과정 등에서 북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특히 상당자금을 북한정권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널은 UNDP가 제공한 현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비록 UNDP가 최근 대북사업규모를 축소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해관계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돼온 UNDP의 대북사업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어떤 물품의 교역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기상재앙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폴란드 전기기사들이 폭풍우로 쓰러진 고압전선탑을 수리하고 있다. 전날 닥친 이 폭풍우로 폴란드에서만 최소 6명이 죽고 20명 이상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초강력’ 폭풍우 유럽 강타...46명 사망

북서유럽 전역에 18일부터 몰아친 허리케인급 폭풍우로 인해 최소한 46명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19일 오후부터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폭풍우가 잦아지면서 중단됐던 항공과 선박, 열차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다.

이번 폭풍우로 인한 사망자는 영국 14명, 독일 12명, 네덜란드와 폴란드 각 6명, 프랑스와 체코 각 3명, 벨기에 2명 등 최소한 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운전을 하다가 돌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 등이 승용차를 덮치면서 번을 당했다.

또 독일에서 구조작업을 펼치던 소방대원 2명이 심장마비와 부러



1999년 이래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19일 들어 폭풍우가 잦아지면서 항공과 열차 편이 정상 운항을 재개하는 등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선 전날 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된데 이어 19일 아침에도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으나 오후 들어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공항관계자들이 밝혔다.

런던-브뤼셀-파리를 잇는 초고속열차 유로스타도 오전 파리-런던 행 한편이 취소됐을 뿐 이후 정상운항되고 있다.

독일 전역에서 운항을 중단했던 열차들도 운항을 재개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열차들이 정상속도로 운항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힐러리, 사상 첫 여성대통령 될까

美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힐러리 클린턴 미국 상원의원(뉴욕·59)이 20일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이 나라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도전에 나섰다.

흑인인 배러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과 존 에드워드 전(前) 상원의원 등에 이어 힐러리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히스패닉계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도 21일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힐러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 준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면서 “나는 (대선에) 뛰어들었으며, 승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에 올라 있는 데다 그동안 막강한 선거자금과 조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 레이스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여부가 더욱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워싱턴=연합뉴스

美, 최신예 전투기 F22 日에 12기 배치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에 최신예 전투기 등을 배치하는 등 대북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군은 이달 들어 오키나와의 가테나 기지에 대기중 방출된 방사능물질을 수집하는 특수정찰기인 WC135기를 배치, 지난 19일에는 한반도 방향으로 미군 F22기를 미 본토 이외의 기지에 배치하기는 처음이다.

미군은 지난 11일 4개월간의 예정으로 역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F117 전투기를 군산에 배치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군측은 “특정 지역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레이더로 탐지가 힘든 최신예 F22 전투기 12기를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 정도 가테나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군이 F22기를 미 본토 이외의 기지에 배치하기는 처음이다.

미군은 지난 11일 4개월간의 예정으로 역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F117 전투기를 군산에 배치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군측은 “특정 지역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18년만에 고향집 돌아온 캄보디아 여성

“나, 정글로 다시 갈래”

8세때 소를 몰고 나갔다가 18년만에 고향 집에 돌아 온 캄보디아 여성이 인간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글로 보내질 것을 애원하고 있다고 20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1988년 조카와 함께 소를 몰고 나갔다가 행방불명 됐던 로망 프니엔(27)양은 지난 13일 벌목공들의 도시락을 훔쳐 먹다 발각돼 고향집에 돌아오긴 했으나 아직도 인간이기 보다는 야수와 같은 행동을 하며 정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현지 경찰 간부가 말했다.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325km 떨어진 라타나키리 주의 국경마을 오아

다오의 정글에서 18년을 야수와 살았던 그녀는 “아직도 걷기보다는 기어 다리고 배가 고프면 배를, 목이 마르면 물을 가리키고, 자주 울면서 정글을 가겠다는 표현을 하고있다”고 이 간부는 전했다.

등에 난 흉터를 보고 딸이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크소르 루씨는 “현재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배 아파’ 세마디 뿐”이라고 말했다.

소수민족인 프놈족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프니엔에게 마귀가 들어있다”며 절에 데려가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원하기도 했다. /하노이=연합뉴스

北, 혹독한 겨울나기...동사자 속출

식량부족에 혹한 엄습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해외 원조 중단 등으로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200 마일 가량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외판 마을 ‘구강(Koogang)’.

폭설 등 혹한으로 외부와 고립된 이 마을에서는 최근 주민 46명이 동사(凍死)한 채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다. 희생자들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간 극심한 가난과 북한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아 왔다. 여기에 혹한까지 엄습해 북한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영하 30°C의 추운 날씨 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21일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도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의 한 관리리는 구강 마을 사건을 확인해 주면서 “어느 누구도 살아서 이 고립된 마을(trap)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면서 “폭설이 쏟아진 뒤 혹한이 엄습했고 주민들의 운도 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피의 주말’

하루에만 21명 사망

미국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군 헬기 한 대가 20일 오후 바그다드 북동쪽 지역에서 추락, 승무원과 탑승자 13명 모두 사망한 데 이어 5명이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숨지는 등 이날 하루에만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미군이 밝혔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3일째가 되던 날 28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05년 1월 26일에는 3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중국인들, 한국 경유 금강산 관광 가능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었던 중국인들의 북한 지역 관광이 빠르면 내달 18일 이전에 최초로 실시되는 한국 경유 금강산 관광을 통해 새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산하 대형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가 자국 여행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금강산 관광 노선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이 여행사의 관계자 말을 인용, 20

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회사가 “금강산 관광을 개발한 한국 현대아산그룹 측과 중국인의 금강산 관광업무의 독점적인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광 범위가 금강산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을 경유하는 첫 중국인 관광단이 중국의 춘제(春節) 기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국내 결혼, 국제 결혼 전문업체

결혼정보 모모

한정된 세움일, 결혼정보서비스에서 어렵다는 의회사항 관리 및적인 중심을 믿고신사모

문의 (02) 223-5940

주요번호 000-007-6353

천만인을 위한 가발! 젊은가발! - Sens-Mo

맞춤가발 입니다!

Sens-Mo 02)676-3545

02)432-3545

원지봉아병원과 원경대병원 사며